

# 정읍시 '천년의 기다림' 상설공연



'천년의 기다림 달하 노피곰 도다샤' 포스터.

## 매월 보름 국악과 무용·택견 등 다채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떠서 내 님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멀리 멀리 비추어 주소서!  
하늘 높이 뜬 밝은 달에 남편의 안위를 기원했던 백제시대 한 여인의 간절한 사랑을 담고 있는 백제가요 정읍사(井邑詞)가 매월 보름 다채로운 문화공연으로 되살아난다.  
정읍시가 매월 음력 보름 정읍시문화공원에 특설무대를 마련해 '천년의 기다림'을 주제로 한 상설공연을 갖는다고 밝혔다.  
휘영청 밝은 보름달빛 아래서 '정읍사 여인'과 '천년의 사랑'을 주제로 펼쳐질 공연은 '천년의 기다림 달하 노피곰 도다샤'이다.  
시는 시립국악단과 시민이 함께하는 가족친화형 상설공연을 통해 '소통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해 시민 대화합을 꾀하고 지역발전 의지를 되새긴다는 취지다.  
공연은 이달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매월 보름(6월 19일, 7월 18일, 8월 17일, 9월 15일, 10월 15일, 11월 14일)에 펼쳐진다.

첫 공연은 오는 19일 저녁 7시30분이다. 공연에서는 정읍시립국악단의 정읍을 노래한 '정춘아리랑과 정읍의 미래 꿈나무인 초등학교들이 연주하는 가야금 연주, 정춘예술단의 태평무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읍 알리기 일환으로 문화관광해설사의 안내로 월별 정읍스토리와 노래를 들려주고 보름달빛을 배경으로 국악단 연주에 맞춰 택견을 시연하는 '달마시기'가 이어진다.  
특히 공연무대 외에 장외 행사장도 마련돼 지역상품을 판매하는 '올빼미 보부상'이 운영되고, 글씨 재능기부와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하는 관광홍보 및 다과 체험도 마련돼 있다.  
시는 "기존 공연의 틀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3거리 공연(불거리(정읍시문화공원), 줄거리(상설공연), 먹거리(올빼미보부상))의 묘미와 재미를 만끽할 수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생기 시장은 "이번 '천년의 기다림 문화공연'이 시민 모두가 참여해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참여 공연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동글고 환한 보름달을 벗 시민들이 힐링하고, 가족은 물론 이웃과도 정을 나누고 화합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고 월별로 스토리가 있는 공연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 군산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공모

군산시는 시립교향악단을 열정적으로 이끌어 갈 경험과 능력 있는 상임 지휘자를 공개 모집한다.  
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공개모집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응모서류를 접수해 1차 서류, 2차 실기, 3차 공연 지휘 심사 및 면접심사를 실시해 8월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응모자격은 국내·외 4년제 음악관련 전공학과 졸업자 중 국내·외 대학원에서 지휘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국립·공립·시립교향악단에서 지휘 경력 2년이 있어야 한다. 접수는 군산시 문화예술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되고, 응모서류는 군산시청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 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군산=문정곤 기자

## 비전 국악 거리축제 17일 남원 개최

2016년 비전 국악 거리축제가 오는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남원시 운봉읍 비전마을과 전촌마을 일대에서 풍성하게 열린다.  
올해로 제2회를 맞이하는 비전 국악 거리축제는 작년과 다르게 축제 공간을 남원시 운봉읍 비전마을과 전촌마을 일대로 확대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국악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김놀이 및 난장마당, 한낮의 정자마루 콘서트 등 국악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으며, 딱거리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부대행사도 마련될 예정이다. 국악뿐 아니라 여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축제 기간 동안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사업단은 "비전마을 국악버스"를 무료로 운행한다. 서울에서 남원까지 무료로 운행하는 "비전마을 국악버스"는 하루 1회 왕복으로 오전 8시 양재역 2번 출구에서 출발한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문화의 전당 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교류 전시회에서 관람객이 작품을 구경하고 있다.

## 고창·부안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교류전시

### 내일까지 고창문화의전당서

고창군과 부안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교류 전시회가 고창문화의 전당 전시실에서 열렸다.  
고창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지난해에 이어 '같이전'이라는 주제로 '제 4회 고창·부안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교류전시회'가 오는 10일까지 열린다고 밝혔다.  
8일 고창문화의전당 앞 잔디광장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조순호 고창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회장, 김성구 부안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회장과 군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지역 간의 교류를 통한 생활문화예술의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해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고창·부안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주최로 개최된다. 이번 교류전시에는 고창·부안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21개 동호회 226명이 참여해 미술, 서예, 공예 작품 180점을 전시하며 특히 깃발과 우산 작품 100점을 고창문화의전당 앞에 전시해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창·부안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지역 내 아미추어 동호회의 문화예술 활동지원과 동호회의 다양한 교류 활동을 기획·지원하고 있다.  
고창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조순호 회장은 "지역 간의 문화예술 교류 사업이 동호회의 창의적인 작품 활동에 자극이 된다"며, "동호회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낸 이번 교류전시회 생활문화예술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풍상, 소리 낙.

## 전통문화전당 두가지 이색 전시 '눈길'

### 홍성녀 '소리...' · 'Dress Up' 전

한지에 스민 먹의 농담과 붓의 강약만으로 물과 소나무를 형상화 한 작품, 관람객이 직접 작품의 제목을 지어보는 역발상 전시 등 이색전시가 펼쳐진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오는 28일까지 전당 3층 제2기획전시실에서는 한국화가 홍성녀씨의 '소리, 그리고 이야기 전'을 운브랜드 전시관에서는 청년작가그룹 THE 젊은의 'Dress Up 전'을 각각 연다.  
'물, 그리고'는 주제로 진행되는 홍성녀 작가의 작품은 한지에 수묵의 흔적, 먹의 농담으로 폭포나 계류를 통해 재현 불가능한 힘 혹은 생성 중인 무언가를 표현한다. 이번 전시에는 소리-태고, 풍상, 인고 등 총 2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폭포가 낙하하면서 물안개로 승화하는 모습을 마치 물이 물줄기를 따라 거꾸로 치솟아 오르는 듯 묘사한 '소리-낙'은 이색적이며, 소나무의 강인함과 생명력을 수

묵으로 담아낸 풍상과 인고의 작품들은 술향을 머금은 듯한 생생함을 고스란히 전한다.  
대작 '물(238cm×1000cm)'의 경우는 작가가 1년여의 작업 끝에 완성했다. 이 작품은 웅대한 폭포 한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그려낸다.  
이와 함께 'The 젊은'은 전주에 거주하는 청년 작가들이 모여 만든 그룹으로 김상덕, 김요나, 문민, 박미리아, 박창은, 이가람, 유시라씨 등 총 7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이들은 <Dress Up>을 주제로 작가마다 평소 애용하던 재료와 이미지 형태 등을 다르게 하여 자신을 변장하는 작업을 시도했다.  
이 전시의 특이점은 모든 작품에 제목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관람객들에게 무한 상상력을 심어 주고, 작가는 관객이 어떤 시선으로 작품을 바라보는지 엿보기 위해 마련됐다.  
/정해은 기자

## 내일 전주부채문화관 소장품 특별전

부채의 용도와 가치는 실로 다양하다.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부채엔 여덟 가지 덕이 있다고 여겼다. 그래서 더위가 시작되는 단옷날 즈음 부채를 선물로 주고 고반으며 그에 얽힌 해학과 낭만을 즐겼다.  
그 여덟 가지 덕은 '더위를 쫓아주는 덕, 땅에 앉을 때 방석이 되어주는 덕, 파리·모기를 쫓아주는 덕, 저 멀리 방향을 가리켜주는 덕, 여인이 옷 갈아입을 때 가려주는 덕, 흥겨울 때 노래를 부를 때 장단 맞춰주는 덕, 빗집이 만났을 때 얼굴을 가려주는 덕' 등이다.  
또한 유럽에서 부채는 귀부인의 장식품이자 연애의 도구로 쓰였다.  
특히 17·18세기 접는 부채가 이 같은 용도로 사용됐다. 11세기 고려에서 중국으로 건너간 이 부채는 16세기 들어 포르투갈인들에 의해 중국에서 유럽으로 전해졌고, 이후 스페인·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17세기부터 유럽 여성들은 부채를 연애 감정을 표현하는 메시지로 사용했다. 이는 일종의 부채 언어로 자신의 연애 감정을 드러내기 어려웠던 여성이 부채를 통해 다양한 감정을 표현했다. 심지어 17세기 런던과 파리에서는 사교에 서툰 여성에게 부채 언어를 가르치는 아카데미가 만들어지기까지 했다.  
오늘날 부채는 판소리, 뮤지컬 등의 문화공연에서 소품으로 두루 쓰이며 문화적 언어를 대신하며, 글씨·그림·장식 등이 결합되어 예술작품으로 거듭나 소장의 가치를 지니기도 한다.  
부채와 관련해, 2016 전주단오 행사일인 9일과 10일 덕진공원 전주시립갤러리에서는 전주부채문화관 소장품 특별전이 열린다.  
이번 부채 특별전에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선자장 작품에 미술가들이 그림을 그린 작품 50여점이 전시된다.  
이와 함께 덕진공원 취향전 앞에서는 합화부채와 냅킨부채를 만드는 공예체험 마당도 마련된다.  
/정해은 기자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6월 9일)

|   |   |   |   |
|---|---|---|---|
| <p><b>▷쥐띠</b><br/>46년생: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오히려 해가 발생한다.<br/>60년생: 언행에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br/>72년생: 동기반으로 인해 마음 상할 일이 생기는 운.<br/>84년생: 좋은 일보다 험악한 격으로 다른 사람의 일에 나서지 말고 상황을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p> | <p><b>▷소띠</b><br/>49년생: 참모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br/>61년생: 권위적인 행동을 버리고 화합하라.<br/>73년생: 구설수와 시비가 따르는 운이다.<br/>85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공과 사를 잘 구별해야 하는 운이다.</p>                                | <p><b>▷호랑이띠</b><br/>50년생: 경쟁자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기는 운.<br/>62년생: 일시적인 감정으로 행동하지 마라.<br/>74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이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과민반응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br/>86년생: 금전운이 좋아진다.</p> | <p><b>▷토끼띠</b><br/>51년생: 자신만의 생각에 몰두해 상황을 판단하지 못할 수 있는 운이니 주의하라.<br/>63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손윗사람의 도움을 받아라.<br/>75년생: 다른 사람과 화합하거나 모임에 참석하기 좋은 운.<br/>87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서 좋은 결실을 맺는다.</p> |
| <p><b>▷용띠</b><br/>52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일찍 움직여라.<br/>64년생: 시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br/>76년생: 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자신을 돌보고 상황을 주시하면서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한다.<br/>88년생: 자신보다 어렵다고 무시하는 언행은 삼가라.</p>          | <p><b>▷뱀띠</b><br/>53년생: 변동이나 변화를 가지면 흉한일이 생기는 운.<br/>65년생: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br/>77년생: 생각했던 것을 구체화 시켜서 조심스럽게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br/>89년생: 무심코 했던 행동으로 구설수가 발생하고 원망을 살 수 있으니 조심하라.</p> | <p><b>▷말띠</b><br/>54년생: 여성은 남성과의 트러블을 피해야 한다.<br/>66년생: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br/>78년생: 인덕이 있는 운이다.<br/>90년생: 동기반에 화합하면 좋은 일이 있다.</p>                  | <p><b>▷양띠</b><br/>55년생: 우울감에 빠질 수 있는 운.<br/>67년생: 작은 것을 얻었다고 더 큰 것을 욕심내는 실수를 범하지 마라.<br/>79년생: 다른 사람과의 의견이 맞지 않는다.<br/>91년생: 자질이 많아지는 운이니 감안하고 움직여라.</p>                      |
| <p><b>▷원숭이띠</b><br/>56년생: 믿고 있던 것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되는 운<br/>68년생: 최악의 상황을 예측하여 행동하면 최고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br/>80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을 오히려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br/>92년생: 혼자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 운이다.</p>      | <p><b>▷닭띠</b><br/>57년생: 나서지 말고 언쟁을 삼가라.<br/>69년생: 먼저 손해를 보면 후에 이득이 있을 운이니 베풀어라.<br/>81년생: 계약을 하거나 문서를 주고받기 좋은 운.<br/>93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이성의 도움을 받아라.</p>                          | <p><b>▷개띠</b><br/>46년생: 식욕이 따르고 인덕이 있는 운.<br/>58년생: 하고자 하는 모든일을 약간 모자르게 해라.<br/>70년생: 뒷사람과의 화합에 신경써라.<br/>82년생: 건강에 좋지 않은 운.</p>                                | <p><b>▷돼지띠</b><br/>47년생: 방해자가 나타나니 주의하라.<br/>59년생: 금전적인 손실이 따르는 운이다.<br/>71년생: 순간적인 상황에 휘둘리지 마라.<br/>83년생: 두 번, 세 번 봐도 놓치는 것이 생기는 운이니 매사를 세밀하게 보고 검토하라.</p>                   |